

미래전략포럼
'25.5.28.(수) 14:00

모 두 발 언

2025. 5. 28.

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
김 범 석

안녕하십니까.

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김범석입니다.

오늘 미래전략포럼에 함께해 주신

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

내외 귀빈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.

현재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,

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및 경제성장 동력 저하 등으로

우리 경제의 미래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

다음주 출범하는 신정부에서도

경제활력 제고 및 경기보강과 함께

잠재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미래전략을

마련하고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오늘 논의가 향후 미래 전략 수립에

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.

2025년 첫 번째 미래전략포럼의 주제로는

‘바이오산업’을 선정했습니다.

우리가 바이오산업에 주목해야 하는

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

첫째, 바이오는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입니다.
2025년 글로벌 바이오산업 규모는 약 2조 4000억 달러*로
예상되며 이는 반도체 산업(7000억 달러)의 3배입니다.

* PWC 글로벌 바이오-헬스케어 산업 2025년 전망

둘째, 바이오는 확장성이 높은 산업입니다.
바이오 기술은 의약품 외 친환경 신소재나 차세대 농작물
생산에도 활용되는 등 파급 효과가 큰 산업입니다.

셋째, 주요 국가들은 이미 넥스트 ‘칩 워(Chip war)’ 라
불리는 ‘바이오 워(Bio War)’ 에 뛰어들고 있습니다.
전통적인 바이오산업 강자인 미국과 EU는
바이오 제조 육성 방안을 이미 발표하였고,
중국도 ‘메이드인 차이나 2025’ 를 통해 생명공학 분야에서
중국이 글로벌 리더가 된다는 목표를 명확히 선언했습니다.

바이오산업은 의약품 산업을 넘어
경제안보와 직결된 전략 산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.

이에 우리나라도 반도체, 자동차, 석유화학 등
전통 제조업 강국을 넘어 바이오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
우리 경제에 장착해야 합니다.

우리나라의 바이오산업은 지난 수년간
정부의 지속적인 R&D 투자와 인프라 확충을 통해
전고한 성장 기반을 다져 왔으며,
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눈부신 성과를 창출하는 등
미래 핵심 산업으로서의 잠재력이 입증되고 있습니다.

그러나 아직 갈 길이 먼 것이 현실입니다.

바이오시밀러와 위탁개발생산(CDMO) 위주로 큰 성장을 하였고
임상 인프라는 글로벌 최고 수준이나,
산업생태계와 투자 규모 면에서는 선진국과 격차가
여전히 큰 상황입니다.

* 국가별 바이오·제약기업 R&D 투자 규모(24년 액\$): (미국)1,029 (유럽)684 (일본)171 (한국)9

이에 정부는 2024년 4월, 대한민국을 바꿀 게임체인저 기술로
AI, 퀀텀(Quantum)과 함께 바이오 기술을 선정하고
‘첨단 바이오 이니셔티브’를 발표한 바 있으며,
국가적 역량 집중을 위해 지난 1월에는
국가바이오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.

오늘 포럼에서 이러한 우리 바이오산업의 위치를
냉정하게 직시하고, 글로벌 바이오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한
전략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

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제언을 바탕으로
정부는 바이오산업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·발전시키고
바이오 분야가 새로운 경제발전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
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